임실치즈 연구개발의 중심이며 치즈산업을 이끌고 있는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이사장 심민)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임실치즈, 새로운 도전 준비

치즈 연구소, 유가공 교육 과정 신설… 치즈과학개론 등 교육

임실치즈 연구개발의 중심이며 치즈산업을 이끌고 있는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이사장 심민)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유가공기술 지원으로 '임실N치즈'를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며 지난해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지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7년 설립이래 치즈 및 발효유 연구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식품소재 산업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등록 33건, 특허출원 60건, 신제품 개발 93건 등의 성과를 통해 임실치즈 기술개발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유가공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치즈과학개론, 이론과 실험 등 제조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지역연고육성산업(RIS) 일환으로 일본 치즈명장을 초청해 관내 낙농가 및 유가공 관련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치즈 고추장, 유청 막걸리, 치즈토마토 소스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통한 대량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치즈토핑커피, 유청 발효식초, 치즈 두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기적 연구 개발과제로 오는 2020년까지 엉겅퀴, 독활, 옻 등 농식품 소재를 활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원료 표준화, 비임상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능성 식품 개발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위치한 특성을 활용해 '관광형 숙성 치즈 제조실'을 운영, 관광객에게 치즈 제조·숙성 과정을 알려주고 홍보와 판매에도 힘쓰고 있다.

심민 이사장은 "앞으로도 50년의 전통과 노하우를 가지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치즈와 유제품 개발을 비롯해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해 임실치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즈와 유산균의 대형 국책 연구개발을 통해 임실치즈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경쟁력과 기반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회원들과 소통, 협의회 발전시킬 것"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김삼순 회장 취임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 제14대 회장으로 김삼순(57, 여)회장이 취임했다.

19일 관내 해오름식당 연회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황숙주 군수, 김종섭 군의회 의장 등 내외귀빈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삼순 신임회장은 "순창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지역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늘리고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단체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순창군 여성단체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여성단체 협의회를 이끌어 왔던 김인자 이임회장도 "그동안 저를 믿고 여성단체협의회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신임 김삼순 회장님과 새로운 운영진들이 노력해 순창군 여성단체 협의회가 전국 제일의 여성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임소감을 밝혔다.

순창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00세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여성리더 스피치 훈련 교육, 장류축제 무료 음료봉사, 구곡순담 100세 문화한마당 행사 등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도 공헌하고 있는 단체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설 명절 기간 AI 차단방역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명절 기간 인구와 차량이동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AI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 AI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장관 주재 AI 일일점검 영상회의에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이길수 부군수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 고창부안축협장,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고창군 관련부서장, 동림저수지 인근 4개 면장 등 15명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앙영상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AI 차단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고창경찰서는 동림저수지 탐조객 출입통제 근무지원, 고창소방서는 거점소독장소·소독초소 급수지원과 거점소독장소 등 화재예방 점검,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농가 AI 방역지도 및 홍보와 소독약품 생석회 등 방역물품 농가 지원,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철새도래상황 점검 및 예찰과 폐사체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유관기관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철저한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귀성객께서도 가금농장 출입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협조를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기준 고창군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30여만 마리가 머물고 있으며 동림저수지 철새모니터링 실시 및 동림저수지 주요 초소 10개소를 설치하여 출입자 통제와 소독, 철새 예찰 및 폐사체 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9일 신림면 종오리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건의 추가발생 없이 AI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지진대피시설 지정·행동요령 홍보

13개소 책임 관리자 지정 · 군청 홈페이지 시설 현황 게시

순창군이 최근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진대피시설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행동요령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최근 혹시모를 지진발생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시설 13개소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한 후 군청홈페이지에 시설 현황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리플릿, 포스터를 비치하고 각종 회의 개최 시 협조 사항을 통해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는 군청에서 군민의 지진대피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민관합동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신·증축을 통한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내진보강했을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50%감면되고,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5년간) 50%감면이 이뤄진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내진설계가 완료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신청 중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연차별 내진보강 사업의 시행 등 지진 대비 시설물 보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오미자 재배기술 · 조직화 사례 실무교육

순창군이 올해 농정시책 설명 및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교육에 적극 나서 농업인들이 반기고 있다.

군은 최근 복흥면 복지회관에서 오미자 재배기술 및 조직화 사례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오미자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군은 딸기, 대추, 체리, 플럼코트, 양봉, 복숭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2월 22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7일 금과면에서는 금과 특산품인 복숭아 병해충 방재 및 관리 요령을 실시했으며 20일에는 순창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SNS를 활용한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2월 22일 생대추 작목반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추재배 기술에 대한 최신기술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순창군은 특히 올해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섭외도 농촌진흥청 전문강사 등 실력있는 강사를 섭외해 농민들이 특화작목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품목별 전문교육과 함께 268개 마을회관을 각 읍면 상담소장이 방문해 올해 농정시책 및 농업인 의식개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실용교육에서는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교육이다.

지난 9일 순창읍 신촌마을을 시작으로 시작했으며 2월 23일까지 구림면 구곡 화암마을을 끝으로 마무리 한다.

교육은 군홈페이지 및 농업인상담소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부적정 수급 방지 전 수급자 대상 인적정비

월별확인조사 등

남원시는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반영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1월 월별확인조사와 2017년 상반기 인적정비를 26일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월별확인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 50% 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17년 1월 월별 확인조사 대상은 67건 (32가구)으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한 소명 및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 서비스연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적정비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정보를 활용해 인적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자격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4월) 시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조사 대상자가 누락을 최소화 하여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적정비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자 482가구, 주민 세대원 변동자 690가구 등 총 1,172가구다. 정비는 주민등록 정보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후 변동분에 대해 이뤄진다.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동사항 정비결과는 수급자 통합관리에 즉시 반영되며, 추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징구·등록 등 조치를 수행해 누락된 급여 지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특례 및 타 법률에 근거한 공적이전소득 등의 변경에 대응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정 누수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더욱 행복한 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로컬플러스

임실군, 이웃사랑 나눔 릴레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릴레이가 이어져 겨울 한파에 지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더했다.

19일 한국SGI(권장 전태준)와 연계된 (사)무궁화복지월드는 지정기탁물품 백미 2,000㎏(350만원 상당)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임실군에 전달했다.

같은 날 (사)전국한우협회 임실지부(지부장 김필기)는 한우 60㎏(200만원 상당)을 임실군에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필기 지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한우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법인 섬진강 다슬기마을(대표 최기술)도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600㎏(100만원상당)을 임실군에 기탁했다.

심민 군수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손길에 지역이 훈훈해졌다"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받은 물품은 관내 경로당, 저소득계층 등 142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설 연휴 비상진료

남원시보건소(최태성)는 설 명절 연휴기간(1.27~1.30, 4일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일반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기관, 응급의료기관 및 비상진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여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소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40개 보건기관을 비롯하여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등 총 103개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 진료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비상진료 운영상황 점검 및 집단 설사환자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발생 시 종합병원, 병원 및 당직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남원시보건소(☎625-4000, 620-7918)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떡국 떡 나눔 행사 열려

고창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떡국 떡 나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7일 고창여성회관에서 진행된 행사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회장 정명순)와 나눔에 동참하며 쌀을 기부한 고창종합병원,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등 관계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떡국 떡 나눔 행사에 기부된 쌀은 총 900㎏으로 이 쌀을 떡국용 떡으로 만들어 독거노인 1118명에게 전달됐다.

군 관계자는 "매년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지원에 힘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지역 내 후원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독거노인 지원과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매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독거노인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